

정전과 기억

남북한 시선집의 김소월
시 등재 양상을 중심으로

강영미

고려대학교 시간강사, 현대시 전공
adorno69@hanmail.net

- I. 정전과 기억
- II. 시선집의 특징 및 수록 작품의 분포 양상
- III. 남북한 시선집 수록 작품의 특징
- IV. 맺음말

I. 정전과 기억

기억은 문화적 구성물이다. 기억은 “지나가버린 희망을 소환해서 이행하기 위¹⁾한 과정적 활동이다. 이때 “과거는 단순한 회상의 대상이 아니라 구체되어야 할 대상”이자 “현재와의 관계 속에서 현장화시켜²⁾야 할 실천적 대상이 된다. 기억을 통해 과거를 불러내는 일은 역사적 사건의 재현이자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지를 만드는 창조적 활동이다. 과거를 기억하는 과정에는 “무엇을 헤아려야 하고 어떤 형태가 기억을 향유·재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지를 둘러싼 책략이³⁾” 팽배하게 작용하게 마련이다. 특정 상황을 기억하는 데 작용하는 복합적인 요인과 그 결과로 작용하는 효과를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기억을 바탕으로, 과거를 재창조하는 작업 중의 하나가 시선집 편찬이다. 시선집은 “특정 시대나 시문학사 전반의 ‘명작’을 골라 실는다는 의도⁴⁾” 속에서 구성된다. 시선집 편찬자는 특정 시인과 작품을 선별하는 작업을 통해 과거를 보존하면서,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을 체화하는 실천 작업을 한다. 시선집에 수록된 시인과 작품을 통한 기억의 과정은 자기동일성의 근거로뿐만 아니라, 집단의 가치를 대변하는 문화적 효과로도 작용한다. 복합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된 정전 목록은 “그 자체에는 인과성도 근거도 설명도 없으나 그로부터 인과성, 근거, 설명이 개시되는 그 무엇⁵⁾” 재래되어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며 정전 목록을 자연화한다. 따라서 기존의 시선집에 등재된 시인과 작품 목록을 그 자체로 인정하면, “존재론적 안정을 유발”하게 되고 “비판적 심의 능력”을 고갈시키며 “존재하는 것을 승인⁶⁾”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남북한에서 각기 다르게 구축하고 있는 정전 목록을 교체 확대하기 어려울

1) “인류가 완전히 배반당하지 않으려면 계몽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를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나가버린 희망을 소환해서 이행하기 위해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순예, 『아도르노-현실이 이론보다 더 엄정하다』(한길사, 2015), 196쪽.

2) 김남시, 「과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안과 밖』(영미문화연구회, 2014. 11), 247쪽.

3) 티아 데노라 지음, 정우진 옮김, 『아도르노 그 이후』(한길사, 2012), 168쪽.

4) 이명찬, 「시교육 자료로서의 사회집」, 『국어교육』 125(한국어교육학회, 2008a. 2), 22쪽.

5) 사사키 아타루 지음, 안천 옮김, 『야전과 영원』(자음과 모음, 2015), 282쪽.

6) 티아 데노라 지음, 정우진 옮김, 앞의 책, 174쪽.

뿐만 아니라, 이후 통일 문학사를 구성하기도 어려워진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시 문학 정전화 과정의 특이성에 주목함으로써, 그 과정에 개입된 여러 요인을 해체하여 재구축의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목표를 둔다. 분단 전후 남북문단에서, 시인과 작품의 정전화 과정을 통해 각기 다른 민족과 국가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있으나 시인과 작품 자체에 주목하면 그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이지 않음을 확인⁷⁾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전체계가 드러내는 가치를 재검토하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1920년대 시선집이 편찬되면서부터 현재까지 남북한 시선집에 가장 많이 등재된 시인은 김소월이다. 시인으로 등재된 횟수나 등재된 작품 수를 기준으로 볼 때, 김소월은 남북한을 대표하는 시인이라 할 수 있다. 김소월의 시가 각종 시선집에 등재된 양상에 주목하면, 체제의 차이가 특정 작품을 선택/배제하는 과정에 작동한 원리를 살필 수 있다. 남북문단이 동일한 작품을 다르게 해석하면서도 시선집에 등재한다는 것은, 표면적인 작품 해석을 넘어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공통의 영역이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해석의 차이를 인정하되 그 차이를 빚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선집 목록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면 남북문단이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해석 권력을 넘어서 작품 자체의 힘에 주목하기 위함이다.

김소월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김억은 “순수한 조선말을 부뜰어다가 생명 있는 그대로 자기의 사상 표현에 사용”한 것은 “한 개의 경이⁸⁾였다며 김소월을 민요시인으로 명명한다. 김동리는 김소월 시에 나타난 “청산과의 거리, 자연에 대한 향수의 세계⁹⁾”에 주목하고, 서정주는 김소월을 체념과 한의 시인¹⁰⁾으로 규정하며, 오장환은 김소월

7) 식민지시대 활동한 시조시인들이 분단 이후 남북한 시선집에 등재되는 방식을 연구하여, 특정 시인의 시 작품이 남북한 시선집에 등재되는 결정적 요인이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강영미, 「정전과 검열 I」, 『우리문학연구』 37(우리문화회, 2010), 161-191쪽.

8) 김억, 「요절한 박해 시인」, 신동욱 편, 『김소월』(문학과지성사, 1991), 199-200쪽. 김소월의 시 인식과 언어 감각에 대해서는 〈가는 길〉을 예로 들어, “言語를 산 대로 잡아다가 산 그대로 使用하였던 것”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김억, 「소월의 생애와 시가」, 『삼천리』 59(1935. 2), 219쪽.

9) 김동리, 「청산과의 거리」, 『문학과 인간』(백민문화사, 1947)(신동욱 편, 『김소월』, 문학과지성사, 1991, 59쪽에서 재인용).

10) 서정주, 「소월 시에 있어서의 정한의 처리」, 『현대문학』(1959. 6)(신동욱 편, 위의 책,

의 시에서 “피할 수 없는 피압박민족의 운명감”¹¹⁾을 읽어낸 바 있다. 분단 이후 남한문단의 헤게모니를 쥔 김동리, 서정주 등은 김소월을 민요시인, 전통 지향적인 민족시인 혹은 반근대적인 전통시인으로, 남한문단의 전통 서정시의 계보를 형성하는 근본 좌표로 자리잡게 한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김소월 시를 근대와 탈근대의 맥락에서 살피는 연구도 속속 나오고 있다.¹²⁾

북한에서의 김소월 연구¹³⁾는 세 축으로 진행된다. 첫째, 고유어와 유순한 운율을 통해 시인의 개성과 인정세태를 드러내며 민족 정서를 체현했다는 평가 둘째, 향토를 사랑하며 근로하는 인민의 생활상과 아픔을 비판적 사실주의의 관점에서 고평하는 내용 셋째, 생활세태를 드러내는 차원에 머물 뿐 시대가 제기하는 자주성을 다루지 못한 점을 항일문학 혁명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내용이다. 사회주의의 당 문에 정책이 반영된 문학사의 서술에서는 김소월에 대한 평가가 적은 편이지만, 시선집 편찬 과정에서는 김소월에 대한 언급이 느는 추세이다. 시선집의 확대 편찬과정에서도 김소월의 시를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한 시기에 창작활동을 한 동일한 시인과 작품에 대한 평가가 분단 이후 갈리고 있으나 그 접점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남북문단에서 김소월 시를 해석해온 방식, 해석의 초점이 바뀌는 양상, 그 과정에 영향을 끼친 문학 내외적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시 작품이 특정 시기부터 시선집에 등재되거나 누락되거나 새로 추가되는 양상, 그 과정에 작용한 영향관계를 살펴야만, 남북문단이 특정 작품을 통해

61쪽에서 재인용).

- 11) 오장환, 「한국시에 있어서의 상징」, 『오장환전집』 2(창작과비평사, 1989), 71쪽.
- 12) 남한문단에서 김소월을 국민시인으로 만드는 과정에 작동한 민족/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찬이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이명찬,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김소월 시의 정전화 과정 연구」, 『독서연구』 20, 한국독서학회, 2008c. 12). 김소월의 시를 탈근대의 맥락에서 새롭게 읽은 논문들도 나오고 있다(김정현, 「김소월 시에 나타나는 ‘영혼’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권유성, 「김소월 「시혼」의 반시론적 성격 연구」, 『국어국문학』 159호, 국어국문학회, 2011, 205-229쪽; 이광호, 「김소월 시의 시선 주체와 미적 근대성」, 『국제한인문학연구』 11, 국제한인문학회, 2013, 125-148쪽).
- 13) 북한에서는 엄호석이 단행본 형태로 『김소월론』을 출판한 이래(엄호석, 『김소월론』,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각종 문학사와 시선집 그리고 주제론으로 편찬한 책에서 부분적으로 김소월의 시에 언급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서의 김소월에 대한 연구물은 권영민이 모아서 편찬해놓았고(권영민, 『평양에 핀 진달래꽃』, 통일문학, 2002), 북한에서의 김소월에 대한 연구 동향은 송희복이 정리해놓았다(송희복, 「북한의 김소월관 연구」, 『김소월 연구』, 태학사, 1994).

각기 다르게 구축한 한 정치 미학적 이데올로기를 밝히고 그 접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 시선집의 특징 및 수록 작품의 분포 양상

평론이나 문학사에서 언급된 작품도 시선집에 등재되지 않으면, 여타의 시선집이나 교과서에 재등재될 가능성은 현저하게 적다. 시선집에 등재된 시인과 작품 목록은 당대 문단의 평가를 반영하고 교과서 등재작을 결정짓는 중요한 거점이 된다. 표1은 현재까지 입수한 남북문단의 시선집¹⁴⁾ 중 김소월이 등재된 시선집 목록을 제시한 것이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되어 남북 분단이 확정되기 전은 분단 이전으로 한데 묶었다.

표1-김소월이 등재된 시선집

A. 분단 이전 시선집	① 조선통신중학관, 『조선시인선집-28문사 걸작』, 조선통신중학관, 1926. ② 김동환, 『조선명작선집-시기편』, 삼천리사, 1936. ③ 조선일보 출판부, 『현대조선문학전집-시기집』, 조선일보사, 1939. ④ 이하윤, 『현대서정시선』, 박문서관, 1939. ⑤ 임화, 『현대조선시인선집』, 학예사, 1939. ⑥ 임학수, 『조선문학전집-시집』, 한성도서, 1949. 4(초판). ⑦ 서정주, 『현대조선명시선』, 은문사, 1950.
B. 남한 시선집	㉔ 김용호·이설주, 『현대시인선집』 상하, 문성당, 1954. ㉕ 이하윤, 『시집』, 한성도서주식회사, 1955. ㉖ 서정주, 『작고시인선』, 정음사, 1955. ㉗ 김현승, 『한국현대시해설』, 관동출판사, 1972. ㉘ 박두진·김윤성, 『신한국문학전집』, 어문각, 1973. ¹⁵⁾ ㉙ 정한모·김용직, 『한국현대시요람』, 박영사, 1974. ¹⁶⁾ ㉚ 김현승, 『한국현대시해설』, 관동출판사, 1975(증보판) ㉛ 김흥규, 『한국현대시를 찾아서』, 한샘, 1982. ㉜ 민영 외, 『한국현대대표시선 1』, 창작과비평사, 1990. ㉝ 최동호 외, 『한국문학선집 3 시』, 문학과지성사, 2007.
C. 북한 시선집	㉞ 『현대조선문학선집-시(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㉟ 『현대조선문학선집-1920년대 시선(2)』, 문예출판사, 1992.

분단 이후 남북한은 서로 다른 목적과 성격으로 출판을 했다.¹⁷⁾ 그 결과 분단 이후 남북한에서 발간한 시선집 수에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남북한 시선집과 수록 작품을 단순하게 양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북한에서 발간된 시선집의 특징이나 연대를 기준으로 남한시선집과 작품의 특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남한은 북한에 비해 출판이 자유로워 편찬자의 문학관이나 친밀도, 출판사의 성향, 출판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시선집이 발간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각 시기별로 편찬된 시선집의 특징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A는 분단 이전 발간된 시선집 중 김소월을 등재한 시선집 목록이다. 이 시기에는 국민문학과와 김동환, 해외문학과와 이하윤, 문협정통과의 서정주, 카프(KAPF)의 임화와 임학수 등이 시선집을 편찬하며 김소월의 시를 등재하고 있다. 다양한 면면의 편찬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선집을 기획하며 정전화 작업의 초석을 놓고 있다. 분단 이전 발간된 7종의 시선집에 수록된 김소월 시는 총 32편으로, <진달래꽃>(3), <면 후일>(3), <왕십리>(2) 세 편만 중복되고 나머지 24편은 각기 한 번씩 등재되고 있다.

14) 남한에서 발간한 시선집의 면면은 심선옥과 이명찬이, 북한의 시선집 편찬 동향은 유문선이 연구한 바 있다. 심선옥, 「192-30년대 근대시의 정전화 과정: 시인선집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20집(상허학회, 2007. 6); 이명찬, 앞의 논문(2008a. 2); 이명찬, 「한국근대시 정전과 문학교육」, 『한국근대문학연구』 18호(한국근대문학회, 2008b. 10); 심선옥, 「해방기 시의 정전화 양상-『시집』과 『현대조선명시선』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0권(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유문선, 「최근 북한 근대 문학사 인식의 변화: 『현대조선문학선집』(1987-)의 “1920-30년대 시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5호(민족문학사학회, 2007).

15) 『신한국문학전집 35_시선집 1』(어문각, 1973)은 청문협(1946. 4-1947. 1) 출신의 박두진, 어문각과 대한교과서의 출판부장을 맡고 있던 김윤성이 공동 편집위원이 되어 시인 31명의 대표작을 수록한 시선집으로 조병화가 해설을 썼다. 이들은 “『신한국문학전집』=순수문학=민족문학”을 표방하면서 남한문단의 주도권을 장악해간다. 이종호, 「1970년대 한국문학전집의 발간과 소설의 정전화과정-어문각 『신한국문학전집』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43(한국문학연구소, 2012), 51-61쪽.

16) 1908-1950년대 중반까지의 시인 84명의 대표작에 소개의 말을 더하여 한국 현대시 이해의 길잡이 구실을 하도록 기획한 시선집이다.

17) “분단 이후 북한 출판은 주체적 사회주의 체제에서 (당 정책의 선전 도구)로써 통치수단에 출판 매체가 이용되어왔고, 남한에서는 상업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장논리에 의한 <이윤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출판 매체가 활용되어온 것이다. 이처럼 남북한의 출판은 분단 반세기 동안 출판 개념과 성격이 서로 상반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남석순, 「북한 출판 연구」, 『한국출판연구원』(한국출판학회, 2000), 12쪽, 39쪽.

B는 분단 이후 남한의 시선집 목록을 제시한 것이다. 이 시기에는 김소월의 시 33편이 새로 추가되면서 정전의 확대 현상이 나타난다. 1950년대의 서정주는 기존의 10편에 새로운 시 7편¹⁸⁾을 추가하여 김소월의 시 목록을 확대하고, 1970년대의 박두진은 기존의 17편에 새로운 시 21편¹⁹⁾을 추가하여 대대적인 정전 확대 작업을 한다. 1990년대의 창작과 비평사(이하 창비)는 기존의 7편에 새로 2편²⁰⁾을 추가하고 문학과 지성사(이하 문지)는 기존의 5편에 2편²¹⁾을 추가한다. 순수문학을 표방한 조선청년문학가협회(이하 청문협) 출신의 서정주와 박두진²²⁾이 김소월의 시 목록을 대대적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식으로 남한시사의 구도를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1990년대에 이르러 창비와 문지의 시선집 수록 작품을 통해 교체 보완되는 양상을 보인다.

C는 분단 이후 북한시선집 목록이다. 북한은 “당과 국가의 통제 아래서 출판물을 생산 관리하는 국영 출판체계”²³⁾라서 시선집 발행 건수는 남한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편이다. 발행한 시선집 수는 적지만 각 시선집에 수록한 김소월의 시는 남한시선집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이다. 1957년의 시선집에서는 김소월의 시 104편²⁴⁾을, 1992년의 시선집에서는 155편²⁵⁾을 수록한다. 여타 시인들의 시는 수십 편을 수록하는 데 그친 반면 김소월의 시는 100여 편 넘게 수록한다. 북한시선집에서 김소월이 차지하는 바가 절대적임을 의미한다. 김소월 시 전집은 단행본 형태로

-
- 18) 서정주 시선집 추가 작품 7편: 〈개여울의 노래〉, 〈나의 집〉, 〈밭고랑 위에서〉, 〈비단 안개〉, 〈차안서선생 삼수갑산운〉, 〈천리만리〉, 〈하늘 끝〉
 - 19) 박두진 시선집 추가 작품 21편: 〈고향〉, 〈기억〉, 〈녕쿨 타령〉, 〈목념〉, 〈물마름〉,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여름의 달밤〉, 〈여수〉, 〈열락〉,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우리 집〉, 〈임에게〉, 〈임의 노래〉,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자주 구름〉, 〈집동새〉, 〈지연〉, 〈팔벼개 노래〉, 〈항전애창 명주딸기〉, 〈해가 산마루에 저물어도〉, 〈해 넘어가기 전 한참은〉
 - 20) 창비 시선집 추가 작품 2편: 〈옷과 밥과 자유〉, 〈원앙칠〉
 - 21) 문지 시선집 추가 작품 2편: 〈무덤〉, 〈여자의 냄새〉
 - 22) 문협정통과에서 청록파로 이어지는 계보에 김소월을 자리잡게 하면서 전통 서정의 세계를 구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III장의 작품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힌다.
 - 23) 북한의 모든 출판 보도물은 당과 국가의 통제 아래서 출판물을 생산 관리하는 국영 출판체제이다. 남석순, 앞의 논문, 12쪽, 42쪽.
 - 24) 김소월(104편), 이상화(32편), 조명희(28편), 김창술(16편), 류완희(13편), 김주원(4편), 조운(33편), 박팔양(32편), 박세영(32편)의 시를 수록했는데, 다른 시인에 비해 김소월의 시는 월등하게 많이 수록한 편이다.
 - 25) 김소월 항목만 총 9개의 하위 주제로 분류하여 155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출간하지 않았으나 김소월 연구서는 단행본 『김소월론』²⁶⁾으로 출간한 점 역시 북한시사에서 김소월의 위상이 남다른 점을 입증한다. 각 시선집에 수록된 김소월의 작품 목록은 표2로 제시한다.

표2- 각 시선집에 수록된 김소월 시 목록

A. 분단 이전 시선집	
①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엄숙, 월색, 집 생각, 찬 저녁
②	금잔디, 진달래꽃
③	먼 후일, 밤, 옛 이야기, 임의 노래, 풀따기
④	가는 길, 길, 맘 켜기는 날, 먼 후일, 못 잊어, 산, 삭주구성, 어인,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왕십리, 임의 노래, 진달래꽃
⑤	먼 후일
⑥	꿈꾼 그 옛날, 두 사람, 먼 후일, 삭주구성, 서울밤, 엄마야 누나야, 왕십리, 임의 말씀
⑦	산유화, 진달래꽃, 초혼
B. 남한시선집	
㉑	먼 후일, 초혼
㉒	가는 길, 길, 꿈꾼 그 옛날, 두 사람, 맘 켜기는 날, 먼 후일, 못 잊어, 산, 삭주구성, 서울 밤, 어인, 엄마야 누나야, 왕십리, 임의 노래, 임의 말씀, 진달래꽃
㉓	가는 길, 개여울의 노래, 금잔디, 나의 집, 먼 후일, 발고랑 위에서, 비단 안개, 산, 산유 화, 엄마야 누나야, 왕십리, 임의 노래, 진달래꽃, 차안서선생삼수갑산운, 천리만리, 초 혼, 하늘 끝
㉔	금잔디, 산유화, 진달래꽃
㉕	가는 길, 고향, 금잔디, 기억, 길, 나의 집, 넝쿨 타령, 먼 후일, 못 잊어, 묵념, 물마름,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발고랑 위에서, 비단 안개, 산, 산유화, 엄마야 누나야, 여름의 달밤, 여수, 열락,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옛이야기, 왕십 리, 우리 집, 임에게, 임의 노래, 자나 깨나 앓으나 서나, 자주 구름, 접동새, 지연, 진달 래꽃, 차안서선생삼수갑산운, 찬 저녁, 초혼, 팔벼개 노래, 풀따기, 하늘 끝, 향전애창 명 주 딸기, 해가 산마루에 저물어도, 해 넘어가기 전 한참은
㉖	먼 후일, 산, 엄마야 누나야, 접동새, 진달래꽃, 못 잊어,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왕십리, 가는 길, 산유화, 초혼
㉗	금잔디, 산유화, 진달래꽃
㉘	가는 길, 금잔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산유화, 엄마야 누나야, 진달래꽃, 초혼
㉙	가는 길, 산유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옷과 밥과 자유, 왕십리, 원원침, 접동새, 진달 래꽃, 초혼
㉚	무덤, 산유화, 여자의 냄새, 접동새, 진달래꽃, 차안서선생삼수갑산운, 초혼

26) 엄호석, 앞의 책.

C. 북한시선집

㉠	<p>가는 길, 가는 봄 삼월, 가을 아침에, 가을 저녁에, 강촌, 개여울, 거친 풀 흐트러진 모래 동으로, 건강한 잠, 고락, 고적한 날, 고향, 귀뚜라미, 그리워, 금잔디, 기분 전환, 기회, 길, 깊고 깊은 언약, 꽃춧볼 켜는 밤, 꿈, 꿈길, 나의 집, 낙천, 남의 나라 땅, 낭인의 봄, 날, 눈 오는 저녁, 달맞이, 닭소리, 닭은 꼬꾸요, 대수풀 노래, 두 사람, 들놀이, 만나 려는 심사, 만리성, 맘의 속의 사람, 먼 후일, 뭍쓸 꿈, 못 잊어, 무심, 물마름, 바다, 바다 가 변하여, 뽕나무밭 된다고,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바 람과 봄, 반달, 밤, 밭고랑 우에서, 버러운 몸, 봄비, 부귀공명, 불운에 우는 그대여, 불탄 자리, 붉은 조수, 비난수하는 마음, 비단 안개, 삭주구성, 산, 산 우에, 산유화, 상쾌한 아침, 생의 감격, 서울 밤, 설음의 덩이, 수아, 실제, 애모, 야의 우적, 아버지, 어인, 엄 숙, 여름의 달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옛 이야기, 오는 봄, 오시는 눈, 왕십리, 우리 집, 의와 정의심, 임에게, 임의 노래, 지나 깨나 았으나 서나, 자주 구름, 장별리, 저녁 때, 접동새, 제비1, 제비2, 지연, 진달래꽃, 집 생각, 찬 저녁, 천리만리, 첫 치마, 초흔, 춘강, 춘향과 리도령, 칠석, 풀따기, 향전애창 명주떨기, 해 넘어 가기 전 한참은, 해가 산마루에 저물어도, 혼잣말, 후살이</p>
㉡	<p>가는 길, 가는 봄 삼월, 가시나무, 가을 아침에, 가을 저녁에, 강촌, 개아미, 개여울, 개여 울의 노래, 거친 풀 흐트러진 모래동으로, 건강한 잠, 고락, 고만두풀, 고적한 날, 고향, 공원의 밤, 구름, 귀뚜라미, 그를 꿈꾼 밤, 그리워, 금잔디, 기분 전환, 기억1, 기억2, 기 회, 길, 길차부, 깊고 깊은 언약, 깊은 구멍, 꽃춧볼 켜는 밤, 꿈1, 꿈2, 꿈길, 꿈꾼 그 옛날, 꿈자리,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나의 집, 낙천, 남의 나라 땅, 낭인의 봄, 날, 녀를 티령, 눈 오는 저녁, 눈물이 수루룩 흘러납니다, 단장(1), 단장(2), 달맞이, 닭소리, 닭은 꼬꾸요, 담배, 대수풀 노래, 두 사람, 둥근 해, 들놀이, 마른 강 둔덕에서, 만나려는 심사, 만리성, 맘에 있는 말이라고 다 할까 보나, 맘의 속의 사람, 먼 후일, 뭍쓸 꿈, 못 잊어, 무덤, 무심, 문건폐, 물마름, 바다, 바다가 변하여 뽕나무밭 된다고, 바라건대는 우 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비람과 봄, 반달, 밭고랑 우에서, 배, 버러운 몸, 봄밤, 봄비, 부귀공명, 부모, 불운에 우는 그대여, 불탄 자리, 붉은 조수, 비난수하는 마음, 비단 안개, 비소리, 빛, 사계월, 삭주구성, 산, 산 우에, 산유화, 상쾌한 아침, 생의 감격, 서울밤, 설음의 덩이, 수아, 술, 실제, 애모, 야의 우적, 아버지, 어인, 엄마야 누나 야, 엄숙, 여름의 달밤, 여수(1), 여수(2),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옛 이야기, 오는 봄, 오 시는 눈, 오퍼의 읊, 옷과 밥과 자유, 왕십리, 우리 집, 원양침, 의와 정의심, 일야우, 임 에게, 임의 노래, 잊었던 맘, 지나 깨나 았으나 서나, 자전차, 자주 구름, 장별리, 저녁때, 절제, 접동새, 제물포에서(1) 밤, 제물포에서(2) 새벽, 제비(1), 제비(2), 지연, 진달래꽃, 집 생각, 차안서선생삼수갑산운, 찬 저녁, 천리만리, 첫치마, 청채사, 초흔, 춘강, 춘향과 이도령, 부침추령, 칠석, 팔벼개 노래, 팔벼개 노래를 쓰기까지_산문, 풀따기, 하늘, 하늘 끝, 함구, 함장, 향전애창 명주떨기, 해 넘어가기 전 한참은, 해가 산마루에 저물어도, 후 길, 후살이 [산문 : 시혼]</p>

이들 시선집에 등재된 작품의 반복 횟수를 추출하면 표3과 같다. 많이 반복된 작품 순서로 작품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분단 이전부터 분단 이후 현재까지 남북한 시선집에 등재된 시 작품의 교체 양상, 특정 작품이 반복되는 현상, 새로운 작품이 추가되는 시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표3-작품 반복 횟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	b	c	d	e	f	g	h	i	j	㉠	㉡	합계	
진달래꽃		○		○			○		○	○	○		○	○	○	○	○	○	○	○	13
산유화							○			○	○	○	○	○	○	○	○	○	○	○	11
먼 후일			○	○	○	○		○	○	○			○						○	○	10
초혼							○	○		○		○	○		○	○	○	○	○	○	10
가는 길				○				○	○	○	○	○	○		○	○				○	9
왕십리				○	○			○	○	○	○	○	○			○				○	9
금잔디		○								○	○			○	○					○	8
산				○					○	○		○	○						○	○	7
엄마야 누나야					○			○	○		○	○			○					○	7
임의 노래			○	○				○	○											○	6
접동새												○	○			○	○			○	6
못 잊어				○				○				○	○							○	6
삭주구성				○	○			○												○	5
서울 밤				○	○			○												○	5
길				○				○				○								○	5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	○			○			○	5
어인				○				○												○	4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			○				○	4
비단 안개										○		○								○	4
옛 이야기		○											○							○	4
차안서선생 삼수갑산운										○		○							○		4
찬 저녁	○												○							○	4
풀따기			○										○							○	4
꿈꾼 그 옛날						○		○													3
두 사람						○		○													3
밤			○																	○	3
엄숙	○																			○	3
집 생각	○																			○	3
천리만리										○										○	3
나의 집										○		○									3
밭고랑 위에서										○		○									3
하늘 끝										○											3
항전애창 명주떨기													○							○	3
고향													○							○	3
여름의 달밤													○							○	3

	5	1	3	2	못 잊어
		2	1	2	삭주구성, 서울 밤
		1	2	2	길
	4	1	1	2	어인, 옛 이야기, 찬 저녁, 풀따기
	3	1	1	1	꿈꾼 그 옛날, 두 사람
	2	1	1		맘 켜기는 날, 임의 말씀
	1	1			월색
	B	6		4	2
5			3	2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3	1	차안서선생 삼수갑산운
4			2	2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비단 안개
			2	1	나의 집, 발고랑 위에서, 하늘 끝
3		1	1	2	고향, 여름의 달밤, 우리 집, 임에게, 임의 노래,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자주 구름, 지연, 천리만리, 향전야창 명주말기, 해가 산마루에 저물어도, 해 넘어가기 전 한참은
	2				1
C	2		2	가는 봄 삼월, 거친 풀 흐트러진 모래동으로, 건강한 잠, 고락, 고적한 날, 그리워, 기분 전환, 기회, 깊고 깊은 언약, 꽃 촛불 켜는 밤, 꿈, 꿈길, 낙천, 남의 나라 땅, 남인의 봄, 날, 눈 오는 저녁, 달맞이, 닭소리, 닭은 꼬꾸요, 대수풀 노래, 두 사람, 만나려는 심사, 만리성, 몹쓸 꿈, 무심, 바람과 봄, 반달, 버러운 몸, 봄비, 부귀공명, 불운에 우는 그대여, 불탄 자리, 붉은 조수, 비난수하는 마음, 산 우에, 상쾌한 아침, 생의 감각, 설움의 덩이, 수아, 실제, 애모, 아의 우적, 어버이, 오는 봄, 오시는 눈, 의와 정의심,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장별리, 저녁 때, 제비1, 제비2, 진달래꽃, 첫치마, 춘강, 춘향과 리도령, 칠석, 후살이	
				1	1
		1			

남북한 시선집에 김소월 시가 등재된 양상은, 분단 이전부터 분단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등재된 작품군 A, 분단 이후부터 남북한 시선집에

새로 등재된 작품군 B, 분단 이후 한쪽 시선집에만 등재된 작품군 C로 나눌 수 있다. A에 해당하는 작품은 〈진달래〉, 〈산유화〉, 〈초혼〉, 〈먼 후일〉, 〈엄마야 누나야〉 등인데 이 중 〈진달래꽃〉, 〈먼 후일〉은 전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등재되고, 〈산유화〉, 〈초혼〉, 〈엄마야 누나야〉는 분단 이전에는 1회 선정되다가 분단 이후 등재 횟수가 급증한다. B에 해당하는 작품은 〈접동새〉,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등인데 이 중 〈접동새〉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는 남한시선집에 더 많이 등재되고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은 북한시선집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등재된다. C에 해당하는 작품 중 남한의 시선집에만 등재된 작품은 〈여자의 냄새〉, 〈임의 말씀〉이고 북한의 시선집에만 등재된 작품은 〈가는 봄 삼월〉, 〈가시나무〉 등을 포함한 수십 편의 작품이다. 김소월의 시를 등재한 북한의 시선집은 두 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김소월 시의 등재 횟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특히 두 번째 시선집에서는 “문학사-시사 영역의 확장과 작가·작품 평가의 유연한 태도 변화를”²⁷⁾ 보이며 이전 시선집에 누락된 작품을 대거 확대 등재하는 양상을 보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전반적인 개방과 확장의 추세 속에서 이전 시선집에 누락되거나 배제되었던 시 작품을 대거 등재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Ⅲ. 남북한 시선집 수록 작품의 특징

1. 분단 전후 지속적 등재

이 장에서는 분단 전후의 시선집에 고르게 등재된 작품과 분단 이후 등재 횟수가 급증한 작품을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분단 전후 지속적 등재작: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상상

분단 전후로 각종 시선집에 많이 등재된 시는 〈진달래꽃〉, 〈먼 후일〉이

27) 유문선, 앞의 논문, 428쪽.

다. 이 두 편은 이별과 상실을 소재로 한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아직 이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의 이별을 상상하거나, 이미 이별한 상태에서 미래의 만남을 상상하는 내용이다. 헤어질 것을 미리 염려하거나, 먼 훗날 만나서 나무랄 것을 걱정한다는 것은 모두 만남, 이어짐을 전제로 한다. 누군가와 이별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상실감을 갖는 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상태이고 보편적인 감정이다. 누구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별의 대상은 연인도 가족도 국가도 될 수 있다.

나보기가 역겨워/가실때에는/말엽시 고히 보내드리우리다//
 寧邊에藥山/진달래꽃/아름싸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거름거름/노힌고깃출/삼분히즈러밧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가실때에는/죽어도아니 눈물흘니우리다

-〈진달래꽃〉-28)

〈진달래꽃〉은 분단 전후 남북한 시선집에 가장 많이 등재된 작품이다. 대중성과 문학성을 결합한 김동환, 전통 서정의 계보를 만든 서정주²⁹⁾, 순수 서정을 강조한 이하운, 청문협 출신의 박두진, 민요적 서정에 주목한 정한모, 현실적 맥락을 고려한 창비, 문학성을 강조한 문지의 시선집뿐만 아니라 현실 비판적 맥락을 강조한 북한시선집에도 〈진달래꽃〉은 고르게 등재되어 있다. 분단 전 카프 계열의 임화와 임학수의 시선집에서만 〈진달래꽃〉이 제외되었을 뿐, 분단 후 현재까지 사상의 차이와 시공을 넘나들며 지속적으로 등재되고 있다. 그런데 등재된 이유는 조금씩 바뀐다.

〈진달래꽃〉은 주로 토속어의 특징과 음악성을 살린 세련된 형식미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별과 체념의 미학을 구현한³⁰⁾ 점에서, 소중한 것을 잃은 자의 사랑, 원망, 한을 반어적·역설적으로 표현한³¹⁾ 측면에서 평가되어 왔다. 북한에서는 “버림받은 여성의 가련한 형상”에 주목하기도 하고, 임을 떠나보내게 하는 “봉건적 료리의 악습”에 초점을 두기도

28) 이 글에서 인용한 시의 표기법은 『진달래 꽃』(매문사, 1925. 12)을 따랐다.

29) 심선옥, 앞의 논문(2007. 6), 91-92쪽.

30) 김현승, 『한국현대시해설』(관동출판사, 1972), 44-45쪽.

31) 김홍규, 『한국현대시를 찾아서』(한샘, 1982), 207쪽.

하며 “리별의 서러움을 두고 우리는 그것을 낳은 어지러운 사회를 저주하게 되는 것”³²⁾이라며 이별을 낳게 한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남북문단에서 강조하는 지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더 크다. 우리말의 고유한 특징과 근대적 시 형식 그리고 이별의 상황이라는 보편성이 공감의 요소로 작용한 듯하다. 이러한 요인은 각기 다른 이데올로기나 국가와 민족 담론을 모두 아우를 교집합으로 포함할 요소이지 배척할 요인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별의 상황에 대처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수동적/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 “보내드리우리다”라는 진술을 표면적/반어적으로 받아들이느냐의 해석의 차이는 시를 좀 더 깊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것이지, 시의 정서를 상반되게 가를 정도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진달래꽃>을 해석하는 남북한의 차이는 미미한 편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진달래꽃>은 남한 교과서에 12회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변 지역의 교과서에 도 2회 등재되어 있다.³³⁾ 분단 전후로 남북한 시선집에 두루 등재될 정도로 이데올로기에서도 자유롭고, 남한 및 연변 지역 교과서에 모두 등재될 정도로 공간적 제약에서도 자유로운 작품이다. 이별의 상황이라는 보편성, 조선 고유어의 사용, 세련된 시형이라는 세 요인이 남북한을 대표하는 시 작품으로 <진달래꽃>을 자리잡게 한 것으로 보인다.

<진달래꽃>과 함께 남북한 시선집에 많이 등재된 또 다른 작품은 <먼 후일>이다. 분단 전에는 조선일보사, 이하윤, 임화의 시선집에 등재되었고 분단 후에는 김용호, 이하윤, 서정주, 정한모의 시선집 그리고 북한의 시선집 두 곳에 모두 등재되었다. 임화의 시선집에도 <먼 후일>한 편이 등재되어 있다. 현재는 비록 이별한 상태이지만, 미래의 언젠가 만날 것을 상상하는 희망에 초점을 두고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이 시를 “도덕·윤리적 감정 표현에 초점을 두고, 세상 인정의 야속함을 비판적으로 밝”³⁴⁾혔다고 평가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32) 류회정, 『1920년대시선』(문예출판사, 1922), 17쪽.

33) 김소월은 해방 직후부터 7차 교육 과정기까지 남한의 교과서에 제일 많이 등재된 시인이다. 7차까지의 교과서에 <진달래꽃>은 12회, <엄마야 누나야>는 9회, <산유화>는 5회, <금잔디>는 3회, <산>, <왕십리>, <가는 길>은 2회, <기회>, <길>, <뭇 잎어>, <절동새>, <초혼>은 1회 수록되었다. 김소월 시가 수록된 교과서 정보는 <부록의 표5>로 제시한다.

34) 현종호, 『현대작가론(1)』(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 227-290쪽(권영민, 앞의 책, 54-55쪽에서 재인용).

먼훗날 당신이 차즈시면/그새에 내말이 「니젓노라」//
 당신이 속으로나무리면/「뭇척그리다가 니젓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리면/「밋기지안아서 니젓노라」//
 오늘도어제도 아니넛고/먼훗날 그새에 「니젓노라」

-〈먼 후일〉-

시 속의 화자는 현재 당신과 이별한 상태이다. 당신과 이별한 상태에서 언젠가 만날 날을 상상하며 현재를 견디고 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어느 날, 만약 당신을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을 잊겠다는 다짐은, 현재의 이별의 아픔보다는 미래의 만남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 간절함이 “뭇척그리다가” “밋기지 안아서” “니젓노라”라는 반어적 진술에 묻어난다. 아직 오지 않아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미래의 어느 날, 만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오늘도 어제도” 아닌 “먼훗날 그새에 「니젓노라」”라는 화자의 직접 진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당신과 헤어진 비극적 상황에서 당신을 만나게 될 긍정적 미래를 선취하는 〈먼 후일〉은 북한의 시선집 두 곳에 모두 등재되어 있다. 북한시선집에서는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치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진달래꽃〉이 분단 전후 남북한 시선집과 교과서에 지속적으로 등재된 바와 달리, 〈먼 후일〉은 1974년 정한모의 시선집에 추가 등재된 이후 남한의 시선집에서 사라진다. 교과서에 등재된 바도 없다. 북한시선집에는 모두 등재되어 있다. 전체적인 등재 횟수가 많더라도 등재되는 양상에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 작품이다.

2) 분단 이후 급증한 등재작: 보편적 삶의 원리 미학화

〈산유화〉와 〈초혼〉은 분단 전에는 서정주의 시선집에 유일하게 등재되다가 분단 이후 남북한 시선집에 등재 횟수가 급증한 작품이고, 〈엄마야 누나야〉는 임학수의 시선집에 등재되었다가 분단 이후 남한시선집에 수록된 횟수가 급증한 작품이다. 〈산유화〉와 〈초혼〉에는 분리의 상황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고, 〈엄마야 누나야〉에는 통합적 상황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산유화〉는 공간적 거리감이, 〈초혼〉은 생사의 격절감이 전제되어 있다. 반복 구문을 통한 안정적인 시형을 통해 시적 정서를 입체화하는 공통점도 보인다.

산에는 꽃피네/꽃치피네/갈 봄 너름업시/꽃치피네//
 산에/산에/피는꽃춘/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우는 적은새요/꽃치초와/산에서/사노라네//
 산에는 꽃지네/꽃치지네/갈 봄 너름업시/꽃치지네

-〈山有花〉-

〈산유화〉는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는 꽃과 그 꽃이 좋아 산에 사는 새가 1연과 4연에 안긴 구조이다. 이 시에서 흑자는 저만치에 드러난 좁힐 수 없는 “인간과 청산과의 거리”³⁵⁾를 읽어내기도 하고, “이 세상 존재들의 근원적 고독 속에서 사물들이 나고 죽는 순환”³⁶⁾ 구조를 발견하기도 한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직설적으로 토로하지 않고 “간접적인 묘사의 방법을 취하여 자신의 외딴 삶을 노래”³⁷⁾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산, 꽃, 새, 피다, 지다, 울다 등의 기본 어휘로 피고 지며 살다 죽는 자연의 이치를 3·4조에 담아낸 점³⁸⁾을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도 이 시의 형식적 특징이 반복구와 행과 연 배치에 있음을 언급한 데 이어 “작은 새조차 꽃이 좋아 산에서 시는데 하물며 우리야 아름다운 강토에서 자기의 삶을 찾아야 하지 않겠”³⁹⁾이라며 “향촌의 자연에 대한 무한한 애착과 생활에 대한 긍지”³⁹⁾가 드러난 시라고 평가한다. 이 시는 일찍이 김동리가 주목한 이래 남한시선집에 줄곧 등재되고 북한시선집 두 곳에도 모두 등재된다. 〈산유화〉에 대한 평가는 양쪽 문단에서 크게 갈리지 않는다.

산자와 죽은 자 간의 격절감을 표현한 〈초혼〉에 대한 평가는 남북한에서 극명하게 갈린다. 이 시는 1947년 오장환이 상징의 맥락에서 언급하고 1950년대에 서정주가 시선집에 등재한 이래, 남북한시선집에 줄곧 등재된다.

35) 김동리, 앞의 글(신동욱 편, 『김소월』, 문학과지성사, 1991, 59쪽에서 재인용). 김동리는 〈산유화〉의 “형식적 구성, 특히 그 음율적 해조에 있어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의 주옥편으로써도 이와 겨루어낼 만한 작품은 드물 것이다”(54쪽)라고 극찬하고 있다.

36) 김홍규, 앞의 책, 147쪽.

37) 김현승, 앞의 책, 45쪽.

38) 유종호, 「임과 집과 길」, 『세계의 문학』(1977, 봄)(신동욱 편, 앞의 책, 123쪽에서 재인용).

39) 현종호, 앞의 책, 227-290쪽(권영민, 앞의 책, 77쪽에서 재인용).

산산히 부서진이름이어!/虛空中에 헤여진이름이어!/불너도 主人 업는이름이어!/
 부르다가 내가 죽을이름이어!//
 心中에남아잇는 말한마디는/꽃삿내 마자하지 못하였구나./사랑하든 그사람이어!/
 사랑하든 그사람이어!//
 붉은해는 西山마루에 걸니웠다./사슴의무리도 슬피운다./찌러져나가안즌 山우해
 서/나는 그대의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겹도록 부르노라./서름에겹도록 부르노라./부르는소리는 빗겨가지만/하늘
 파쌍 사이가 넘우넓구나.//
 선채로 이자리에 돌이되여도/부르다가 내가 죽을이름이어!/사랑하든 그사람이어!/
 사랑하든 그사람이어!

-〈招魂〉-

〈초혼〉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의 “형언할 수 없는 공허감”과 “애절한 원망(願望)”을 통해 “피압박 민족의 운명을 상징한 시”⁴⁰⁾라는 평가를 받은 이래, 반복을 통한 격한 어조와 호흡으로⁴¹⁾ 사별의 고통을 표현하여 공감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평가받는 시이다. 북한에서는 “조국을 애타게 부르며 통국의 정신으로 노래한 서정시”, “민족의 운명에 대한 인민적 감정을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표현”⁴²⁾한 시라고 평가한다. 분단 전 오장환은 그 대상이 조국 조선인지 한 여인인지 어버이인지는 상관없이 없고, 중요한 것은 “애절한 공감”⁴³⁾이라며 절박하게 부르는 대상보다는 걱정적인 감정 자체에 초점을 둔 반면, 북한에서는 걱정적으로 절박하게 부르는 대상이 “조국”⁴⁴⁾과 향토라는 대상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초혼〉은 북한교과서에 등재된 김소월의 유일한 시이기도 하다. 단절감, 격절감, 극복할 수 없는 거리와 한계에 대한 안타까움에 남북시단이 공명하는 형국이다. 이상적 대상이 부재한 문제적 상황에서 그 이상을 애타게 부르며 추구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 비극, 비극적 현재를 토로한 시라 할 수 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선취하는 이 작품을 교과서와 시선집에 모두 등재하고 있다. 이는 북한시

40) 오장환, 「한국시에 있어서의 상징」, 『신천지』(1947. 1)(오장환, 『오장환전집』 2, 창작과비평사, 1989, 71쪽에서 재인용).

41) 김홍규, 앞의 책, 208쪽.

42) 안함광, 『조선문학사(10)-1920년대 문학』(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4), 122-186쪽(권영민, 앞의 책, 161-162쪽에서 재인용).

43) 오장환, 앞의 글.

44) 윤세평, 『해방전 조선문학』(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247-266쪽(권영민, 앞의 책, 31쪽에서 재인용).

사에서 가치를 두는 지점이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에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엄마야 누나야〉는 남한시선집에는 5회, 북한시선집에는 1회 등재되었다. 1955년 이하운의 시선집에 등재되기 시작하여, 1982년 김홍규의 시선집까지 내리 등재되고 그 이후의 시선집에서는 사라진다. 북한에서는 두 번째 시선집에 등재되어 있다. 특이하게도 〈엄마야 누나야〉는 남한교과서에 4회 먼저 등재(1945-1954)된 이후 1955년 서정주의 시선집에 등재되기 시작한다.

엄마야 누나야 江邊살자, /뜰에는 반짝는 金모래빛, /뒷門박게는 갈뉘의 노래/엄마야 누나야 江邊살자.

-〈엄마야 누나야〉-

화자는 엄마, 누나와 함께 강변에서 살고 싶은 소박한 바람을 4행에 담는다. 가까운 이와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간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쉽고 간결한 언어로 노래한다. 시공간을 특정하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상황을 읊조리기에 쉽게 공감하게 된다. 분단 직후의 혼란한 상황에서 여성성이 가득한 조화로운 공간을 꿈꾸며 최소한의 것을 바라게 하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정기(1945-1954)의 교과서에 이 시를 집중적으로 등재한 이유이다. 북한에서는 대대적인 개방과 확장의 추세 속에서 발간한 두 번째 시선집에서 이 시를 등재하고 있다.

2. 분단 이후 새로 등재

분단 이후 시선집에 새로 등장한 작품은 〈접동새〉, 〈예전엔 미쳐 몰랐어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비단 안개〉 등이다. 이들 작품은 남북한 시선집 한쪽에 더 많이 등재된 작품과 남북한 시선집 한쪽에만 등재된 작품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남북한 시선집 한쪽에 편중된 등재작: 추상적 순수 대 구체적 생활

〈접동새〉, 〈예전엔 미쳐 몰랐어요〉는 남한시선집에,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비단 안개〉는 북한시선집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등재되었다. <접동새>는 1970년대의 박두진, 정한모, 1990년대의 창비, 2000년대의 문지 시선집에 수록되고,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역시 박두진, 정한모, 창비 시선집에 수록된다. 문협정통파로 대변되는 박두진이 1970년대에 새로 편찬한 시선집에서부터 등장한 이 작품들은 남한문단에서 구축하려는 순수 서정과 민족문화⁴⁵⁾의 내포를 있는 대표작이라 볼 수 있다.

접동/접동/아우래비 접동//

津頭江가람가에 살든누나는/津頭江압마을에/와서옵니다.//

옛날, 우리나라/먼뒤쪽의/津頭江가람가에 살든누나는/이붓어미식생애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너보라/오오 불설워/식새움에 몸이죽은 우리누나는/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시다.//

아름이나 남아되든 오랩동생을/죽어서도 못니져 참아못니져/夜三更 남다지는 밤이
김프면/이산저山 올라가며 슬피옵니다.

-〈접동새〉-

의붓어미 때문에 세상을 뜬 누이는 동생들을 떠나지 못한다. “남다지는 밤이 김프면” 슬피 우는 소리로 동생들 곁에 머문다. 접동새의 울음으로 “유명(幽明)의 양쪽⁴⁶⁾을 연결하며 한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봉건 유습의 희생물⁴⁷⁾”이 된 여성들의 삶을 그리며 인도주의적 사상을 고취한 시로 평가하고 있다.⁴⁸⁾ 구문의 반복과 3음보의 리듬을 통해 형식미를 살린 점은 남북문단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초점을 두는 해석의 지점은 갈리고 있다.

봄가을업시 밤마다 뚫는달도/「예전엔 미처몰랐서요.」//

이렇게 사뭇차게 그려올줄도/「예전엔 미처몰랐서요.」//

달이 암만밝아도 쳐다볼줄을/「예전엔 미처몰랐서요.」//

45) 조선청년문학가협회는 좌익문학에 맞선 본격적인 문학 이론을 수립하기 위해 회장 김동리, 시분과위원장 서정주, 고전문학분과위원장 조지훈 그리고 박목월, 박두진 등으로 구성되어 1946년 4월 출범한 단체이다. 이 구성원들은 1949년 12월 한국문학가협회 결성되었을 때 주도권을 쥐며 세칭 문협정통파에 해당하는 존재로 자유진영 문인의 대명사가 되기에 이른다. 정재찬, 『현대시 교육의 지배적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6), 35-36쪽.

46) 서정주, 『한국의 현대시』(일지사, 1982), 117쪽.

47) 현중호, 앞의 책, 227-290쪽(권영민, 앞의 책, 84쪽에서 재인용).

48) 안함광, 앞의 책, 122-186쪽(권영민, 앞의 책, 138쪽에서 재인용).

이제금 저달이 서름인줄은/「예전엔 밋쳐몰났서요.」//

-〈예전엔 밋쳐몰났서요〉-

밤마다 돋는 달이 얼마나 밝은지를 예전에는 모르고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뒤늦은 깨달음, 그로 인해 증폭되는 그리움과 설움의 정서를 “예전엔 밋쳐몰났서요”라는 문장의 반복을 통해 강조한다. 헤어진 이유는 드러내지 않고 헤어진 상황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그리움과 설움의 정서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70년대의 박두진은 이러한 작품을 추가하면서 순수 서정의 세계를 보강한다.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은 남한에서는 박두진, 김홍규의 시선집에만 등재된 반면 북한의 시선집에는 모두 등재되어 있다.

나는 썬우엿노라, 동무들과내가 가즈란히/별씨의하로일을 다맞추고/夕陽에 마을로
도라도는썬을,/즐거히, 썬가운데.//

그러나 집일흔 내뭉이어,/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보습대일쌍이 잇섯다면!/이
처럼 썬도르라, 아츨에점을손에/새라새롭은歎息을 어드면서.//

東이라, 南北이라,/내뭉은 썬가나니, 불지어다./希望의반짝임은, 별빛치아득임
은,/물결썬 썬올나라, 가슴에 팔다리에.//

그러나 엿지면 황송한이心情을! 날로나날이 내압혜는/자츨가느른길이 니어가라.
나는 나아가리라/한거름, 썬한거름. 보이는山비탈엔/온새벽 동무들 저저혼자 [...]
山耕을 김매이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우리의 보습대일쌍이 잇섯다면〉-

화자는 노동을 마치고 즐거이 귀가하는 꿈속 상황과 집과 땅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비참한 실제 현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식민지 현실의 비극성을 드러낸다. 주권을 잃어 경작지까지 빼앗긴 농민들의 비극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절망적 현실에 대해 “정치적 답변을 준 드문 시 가운데 하나”⁴⁹⁾임에도 남한시선집에는 등재하지 않았다. 시 표면에 현실 비판적 요소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순수 서정시의 계보를 만들던 남한문단에서는 이 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김소월의 시를 편향적으로 등재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이별, 단절, 괴리감을 표현할지라도 그 주제가 구체적 현실 문제와 연계될 경우에는 시선집에 등재하지 않았던

49) 김우창, 「감정주의-김소월의 슬픔」, 『김소월』(문학과학지성사, 1980), 89쪽.

것이다. 반면, 북한에서는 “땅에 대한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⁵⁰⁾을 드러낸 점에서 그리고 “근로하는 인민에 대한 사실주의적 추구, 그들에 대한 신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사회 제도 간의 모순에 대하여 이야기”⁵¹⁾한 점에서 두 권의 시선집에 모두 등재하고 있다. 〈비단 안개〉 역시 이별에서 비롯된 그리움을 표현한 점에서는 앞서 살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와 궤를 같이한다.

눈들이 비단안개에 들니올쎄./그제는 차마 낫지못할쎄러라./맛나서 울든쎄도 그런 날이오./그리워 밋친날도 그런쎄러라.//
 눈들이 비단안개에 들니올쎄./그제는 흘목숨은 못살쎄러라./눈플니는가지에 당치 마귀로/젊은 게집목매고 달닐쎄러라.//
 눈들이 비단안개에 들니올쎄./그제는 종달새 소슬쎄러라./뜰에라, 바다에라, 하늘에서라./아지 못할무엇에 醉할쎄러라.//
 눈들이 비단안개에 들니올쎄./그제는 참아 낫지못할쎄러라./첫사랑잇든쎄도 그런 날이오/영리별잇든날도 그런쎄러라.

-〈비단안개〉-

“눈들이 비단안개에 들니올쎄”마다 차마 잊지 못해 울고, 울다 못해 흘목숨을 끊어버리는 극단적 상황이 벌어진다. 어찌할 수 없는 이별의 고통에 새와 들과 바다와 하늘도 공명한다. “아지 못할무엇에 醉”해 첫사랑을 하고, 영이별을 하게 된다. 인간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애절함을 구체적으로 형상한 시이다. 남한시선집에서는 보편적·추상적인 조화를 꿈꾸며 소박한 행복을 바라거나 이별의 상황에서 빚어지는 슬픔과 서러움이라는 일반적 감정을 드러낸 시를 등재한 반면, 북한시선집에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황과 감정을 형상화하거나 이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그린 시를 등재하는 경향을 보인다.

2) 남북한 시선집 한쪽에만 등재된 시 작품: 너머의 세계 대 개괄적 포용

분단 이후 남한시선집에만 등재된 작품은 〈여자의 뉘새〉, 〈임의 말씀〉 두 편인 반면, 북한시선집에만 등재된 작품은 매우 많아 표4-C로 대체한다. 남한시선집에만 등재된 〈여자의 뉘새〉, 〈임의 말씀〉 두 편 중 〈임의

50) 윤세평, 앞의 책, 247-266쪽(권영민, 앞의 책, 39쪽에서 재인용).

51) 안함광, 앞의 책, 122-186쪽(권영민, 앞의 책, 148쪽에서 재인용).

말씀)은 1955년 이하운의 시선집에 한 번 등재되었고 <여자의 냄새>는 2007년 문지의 시선집에 새로 등장한다. <여자의 냄새>는 남한시선집의 정전 확대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푸른구름의웃남은 달의냄새./붉은구름의웃남은 해의냄새./안이, 짬냄새, 새무든냄
 새./비에마자 축업은살과 옷냄새.//
 푸른바다 …… 어즈리는배 ……/보드랍은그림은 엇든목슴의/조고마한푸릇한 그무
 러진靈/어우러져빛기는 살의 아우성 […]//
 다시는 葬事지나간 습속옛냄새./幽靈실은널뛰는 뱃간옛냄새./생고기의 바다의냄
 새./느즌봄의 하늘을써도는냄새.//
 모래두던바람은 그물안개를 불고/먼거리의불빛은 달저녁을우러라./냄새만흔 그몸
 이춧습니다./냄새만흔 그몸이춧습니다.

-〈여자의 냄새〉-

<여자의 냄새>는 달, 해, 땀, 살 냄새를 통해 한 여인을 떠올리는 내용이다. 장사를 지낸 후의 흔적이 “幽靈 실은” “뱃간옛냄새”로, “하늘을 써도는냄새”로 화자 주변에 머문다. 그 냄새를 잊지 못하는 화자는 사라진 여인에 대한 그리움을 몸 냄새로 기억해낸다. 이승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는 존재를 후각으로 느끼는 화자는 이 세상 너머의 또 다른 세계를 감지하고 있다. 후각을 통해 이승 너머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화자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말한다. <임의 말씀>에서도 화자는 “가면서 함께 가자 하던 말씀”을 잊지 못하여 그 임의 말씀이 “살아서 살을 맞는 표적”이 된다고 생각하며, “첫시(時)면/당신의 뉘맛이로 나가”곤 한다. 이승의 삶을 넘어선 영적인 세계의 가능성을 감각적 표현으로 구체화한다. 이러한 세계를 남한시선집에서는 인정하는 추세이고, 북한시선집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형국이다.

북한시선집에서는 김소월의 시를 거의 다 등재하는 경향을 보인다(표2-C). 김소월은 생전 『진달래꽃』에 127편을 수록하고, 사후에는 김억이 『소월시초』에 새로 20편을 추가한다. 이 점을 감안하면 북한시선집에서 김소월의 시 155편을 수록한 것은 미발표 시까지 포함한 ‘김소월 전집’을 기획한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⁵²⁾ 이처럼 여타의 시인과 다르게

52) 김용직은 『김소월전집』에서 김소월의 미수록 발표시, 미발표 유작시, 번역시, 일문 유고시까지 모두 포함하여 김소월의 전체 시 작품 수를 250여 편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소월의 시를 대거 등재한 것은 북한의 시사를 대표할 시인으로 김소월을 자리잡게 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살핀 바, 남한시선집에서는 서정주의 작업을 축으로 하여 이하운, 김현승, 정한모가 김소월의 작품을 추가하며 '순수서정시' 중심의 계보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현실 비판적인 내용의 시를 배제한 데서 알 수 있는 바이다. 1980년대 들어서야 모순적 현실에 비판적 시선을 던진 시를 포괄하기 시작하고 2000년대 들어서 구체적 감각을 통해 이 세상 너머의 세계로 인식을 확장한 시를 포용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남한시선집에서는 김소월 시의 목록을 확대 보완 교체하며 전통 서정의 세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시선집에서는 포괄의 관점에서 김소월의 시를 대거 등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여타의 시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를 수록하면서까지 김소월 시를 북한시선집의 중심에 자리잡게 한다.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이라는 삶의 원리를 구체화한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쉬운 우리말로, 구어의 특성을 살려 삶의 보편 원리를 드러낸 점을 높이 평가한 듯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한시선집에서는 현실비판적인 시를, 북한시선집에서는 관능적 감각이 드러난 시를 배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소월 시의 구체적 감각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뒤따른다면, 남북한 시선집에서 포용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개방적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풍부하고 섬세한 서정과 음악적인 운율, 아름답고 간결한 시어와 정교하고 평이한 형식, 짙은 향토적 색채와 민족적 정서”⁵³⁾를 드러낸 김소월 시의 특징은 남북문단 모두 인정하는 바이다. 특히 김소월은 ‘구술어’ 즉 ‘말’의 근원성과 기억에 대한 사유를 면밀하게 펼침으로써 영혼으로 표상되는 또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⁵⁴⁾ 토속어 구사, 구어 사용에 드러나는 비일상적인 것과의 교감,

53) 정홍교·박종원, 『조선문학개관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출판사, 1986), 259-361쪽(권영민, 앞의 책, 183쪽에서 재인용).

54) 김정현, 앞의 논문, 7-24쪽.

사라진 옛것과의 소통이 지닌 상징적 의미가 바로 남북문단이 현재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앞으로 통일 문학사에서 함께 보듬고 나가야 할 김소월 시의 근원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부록] 표5-남북한 및 연변 지역 교과서 수록 작품 목록

구분	시기	과정	작품
남한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1945-1954)	조선어학회, 『중등국어교본 상중 1, 2』, 군정청 문교부, 1946. 9.	엄마야 누나야
		조선어학회, 『중등국어교본 하고 2, 3』, 군정청 문교부, 1947. 5.	초혼
		문교부, 『중등국어 1』, 문교부, 1948.	엄마야 누나야
		문교부, 『중등국어 2』, 문교부, 1948.	기희
		고등국어 1-II(전시기), 1952. 9.	가는 길, 금잔디, 산, 산유화, 왕십리, 엄 마야 누나야
		고등국어 1(전후기)	금잔디, 산, 산유화, 엄마야 누나야
	1차 (1954-1963)	『중학 국어』 1-1, 1-2 『중학 국어』 3-1, 3-2	산유화 금잔디
	2차 1963-1973	국어 1-1, 1-2 국어 2	산유화 진달래꽃
	3차 (1973-1981)	중1 고2	엄마야 누나야 진달래꽃
	4차 (1981-1987)	중1 고2	엄마야 누나야 진달래꽃
5차 (1987-1992)	중1 고2	엄마야 누나야 길	
6차 (1992-1997)	중1	엄마야 누나야	
7차 (1997-2007)	중학교 검정 국어교과서 16종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엄마야 누나야(2), 가는 길, 진달래꽃 진달래꽃(8), 산유화, 왕십리, 못 잊어, 접동새	
북한	1997	고등중학교 『문학』 4학년 교과서	초혼
연변	1999-2000	개편 전 『조선어문』, 1학년 1학기 1권	접동새
		개편 전 『조선어문』, 2학년 1학기 1권	진달래꽃
		개편 전 『조선어문』, 3학년 1학기 5권	초혼
	2004	개편 후 『조선어문』 필수	엄마야 누나야
	2007	신편 『조선어문』 7학년 상권 신편 『조선어문』 9학년 하권	진달래꽃 초혼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권영민, 『평양에 핀 진달래꽃』. 통일문학, 2002.
- 김동환, 『조선명작선집-시가편』. 삼천리사, 1936.
- 김소월, 『진달래 꽃』. 매문사, 1925. 12.
- 김용직, 『김소월전집』.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김용호·이설주, 『현대시인선집』 상하. 문성당, 1954.
- 김현승, 『한국현대시해설』. 관동출판사, 1972.
- _____, 『한국현대시해설』. 관동출판사, 1975(증보판).
- 김홍규, 『한국현대시를 찾아서』. 한샘, 1982.
- 류희정, 『1920년대시선』. 문예출판사, 1922.
- 민영 외, 『한국현대대표시선 1』. 창작과비평사, 1990.
- 박두진·김윤성, 『신한국문학전집 35_시선집 1』. 어문각, 1973.
- 사사키 아타루 지음, 안찬 옮김, 『야전과 영원』. 자음과 모음, 2015.
- 서정주, 『현대조선명시선』. 은문사, 1950.
- _____, 『작고시인선』. 정음사, 1955.
- _____, 『한국의 현대시』. 일지사, 1982.
- 송희복, 『김소월 연구』. 태학사, 1994.
- 신동욱 편, 『김소월』. 문학과지성사, 1991.
- 임호석, 『김소월론』.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 오장환, 『오장환전집』 2. 창작과비평사, 1989.
- 이순예, 『아도르노-현실이 이론보다 더 엄정하다』. 한길사, 2015.
- 이하윤, 『현대서정시선』. 박문서관, 1939.
- _____, 『시집』. 한성도서주식회사, 1955.
- 임학수, 『조선문학전집-시집』. 한성도서, 1949. 4(초판).
- 임화, 『현대조선시인선집』. 학예사, 1939.
- 정한모·김용직, 『한국현대시요람』. 박영사, 1974.
- 조선일보 출판부, 『현대조선문학전집-시가집』. 조선일보사, 1939.
- 조선통신중학관, 『조선시인선집-28문사 걸작』. 조선통신중학관, 1926.
- 최동호 외, 『한국문학선집 3-시』. 문학과지성사, 2007.
- 티아 데노라 지음, 정우진 옮김, 『아도르노 그 이후』. 한길사, 2012.
- 『현대조선문학선집-시집(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2. 논문

- 강영미, 「정전과 검열 I」. 『우리문학연구』 37, 우리문학회, 2010, 161-191쪽.
- 권유성, 「김소월 「시혼」의 반시론적 성격 연구」. 『국어국문학』 159호, 국어국문학
회, 2011, 205-229쪽.
- 김남시, 「과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안과 밖』, 영미문학연구회, 2014. 11,
243-274쪽.
- 김정현, 「김소월 시에 나타나는 ‘영혼’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남석순, 「북한 출판 연구-출판 구조와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42, 한국출판학회, 2000, 27-102쪽.
- 심선옥, 「1920-30년대 근대시의 정전화 과정」. 『상허학보』 20집, 상허학회, 2007.
6, 79-120쪽.
- _____, 「해방기 시의 정전화 양상-『시집』과 『현대조선명시선』을 중심으로」. 『현
대문학의 연구』 40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115-148쪽.
- 유문선, 「최근 북한 근대 문학사 인식의 변화: 『현대조선문학선집』(1987-)의 “1920-
30년대 시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5호, 민족문학사학회, 2007,
407-436쪽.
- 이광호, 「김소월 시의 시선 주체와 미적 근대성」. 『국제한인문학연구』 11, 국제한인
문학회, 2013, 125-148쪽.
- 이명찬, 「시교육 자료로서의 사화집」. 『국어교육』 125, 한국어교육학회, 2008a,
2, 21-51쪽.
- _____, 「한국근대시 정전과 문학교육」. 『한국근대문학연구』 18호, 한국근대문학
회, 2008b.10, 43-65쪽.
- _____,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김소월 시의 정전화 과정 연구」. 『독서연구』 20,
한국독서학회, 2008c. 12, 305-334쪽.
- 이종호, 「1970년대 한국문학전집의 발간과 소설의 정전화과정-어문각 『신한국문학
전집』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43, 한국문학연구소, 2012, 45-89쪽.
- 정재찬, 『현대시 교육의 지배적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국 문 요약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시 문학 정전화 과정의 특이성에 주목함으로써, 그 과정에 개입된 여러 요인들을 해체하여 재구축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분단 전후로 남북문단에서, 시인과 작품의 정전화 과정을 통해 각기 다른 민족과 국가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있으나 시인과 작품 자체에 주목하면 그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20년대 시선집이 편찬되면서부터 현재까지 남북한 시선집에 가장 많이 등재된 시인은 김소월이다. 시인으로 등재된 횟수나 등재된 작품 수를 기준으로 볼 때, 김소월은 남북한을 대표하는 시인이라 할 수 있다.

남한시선집에서는 서정주의 작업을 축으로 하여 박두진이 김소월의 시를 추가하며 ‘순수서정시’ 중심의 계보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야 모순적 현실에 비판적 시선을 던진 시를 포괄하기 시작하고 2000년대 들어서 구체적 감각을 통해 이 세상 너머의 세계로 인식을 확장한 시를 포용하는 추세이다. 북한시선집에서는 포괄의 관점에서 김소월의 시를 대거 등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민중의 일상을 포함한 삶과 죽음과 이별이라는 보편적인 원리를 일상적 구어로 표현한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한시선집에서는 현실비판적인 시를, 북한의 시선집에서는 관능적 감각이 드러난 시를 배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소월 시의 구체적 감각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뒤따른다면, 남북한 시선집에서 포용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개방적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소월은 ‘구술어’, 즉 ‘말’의 근원성과 기억에 대한 사유를 면밀하게 펼침으로써 영혼으로 표상되는 또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토속어 구사, 구어 사용에 드러나는 비일상적인 것과의 교감, 사라진 옛것과의 소통이 지닌 상징적 의미가 바로 남북문단이 현재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앞으로 통일 문학사에서 함께 보듬고 나가야 할 김소월 시의 근원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투고일 2016. 6. 21.

심사일 2016. 8. 9.

게재 확정일 2016. 8. 22.

주제어(keyword) 정전(canon), 기억(memory), 김소월(Kim Sowol), 남북한(South & North Korea), 연변(Yanbian), 시선집(anthology), 문학사(a history of literature), 교과서(textbook), 순수 서정(pure lyricism), 계보화(genealogize)

Abstracts

Canon and Memory:

Focusing on the Registration Aspects of Kim Sowol's Poetry in the Anthologies of South & North Korea

Kang, Young-mi

The South Korean poetry anthology genealogized the Korean pure lyric poetries, and this attempt was mainly based on the diverse poems by Sowol Kim. The Korean pure lyric poetry—one genre among many Korean poetries—has been changed its subject as time passed those poems criticizing the reality were considered the part of pure lyric poetry from the early 1980th, and the poetry works unraveling the mystery beyond the universe and broadened the view toward it were also recognized as the part of pure lyric poetry during 21th century. However, the North Korean poetry anthology comparatively took a different perspective and began to focus on the poetry works which described the daily life of public and the universal principle of life and death. Yet the poems with criticism are still excluded from many South Korean anthologies and the poems dealing with the sensual topics are often ignored in North's. By unfolding his concept on the origin of language and memory, Sowol Kim actively explored the possibility to find the whole different universe representing as soul. Both South and North Korea's literary circles tacitly acknowledge the symbolic meaning of the communication between what is lost and the importance of the empathy with the uncommonality in the usage of dialects and colloquial language. The features mentioned earlier are Kim's original poetic elements, and the Korean literary circles should accept them for the forthcoming united Korean literature.